

박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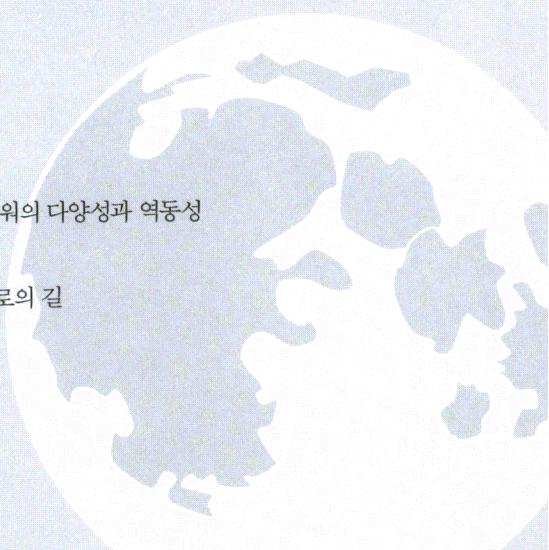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럿거스-뉴저지 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

- 『한국 민주주의와 여성정치-여성국회의원과 그 기능을 중심으로』(공저)
- 『뉴 밀레니엄의 성 정치학』(공저)
- 『ASEM 회원국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증진에 관한 연구: 정치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공저)

서론

- 세계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파워의 다양성과 역동성
- 소프트 파워와 여성의 렌즈
- 갈등과 전쟁에서 협동과 평화로의 길



03

소프트 파워의 세계정치 _여성의 렌즈

1990년대 이후 국제정치의 틀이데올로기화와 함께 행위자와 파워의 다원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양화 되는 파워의 속성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 파워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드 파워가 활용 경지성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 등장한 소프트 파워가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문화, 가치 체계 뿐 아니라 가부장 사회에서 태자화되어 왔던 여성의 시각까지 포함해야 한다. 세계정치 현장에서 소프트 파워에 장착된 여성의 렌즈는 전쟁, 안보 등에 대한 성찰과 함께 중대함/사소함의 의미의 재해석, 진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소외되어 왔던 최소 수혜자의 사적 영역까지 아우르는 삶의 완성태를 그려내고 남성성에 기반하여 젠더화된 국가의 젠더제한성이 해제되면서, 새로운 이상적 세계 질서 모델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주제어 : 소프트 파워, 여성적 시각, 비젠더화, 중대성/사소함, 정당성

1. 서론

세계화 시대의 세계정치는 역동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카오스 이론으로 통하는 나비효과를 거론하지 않더라고, 지구상의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곳의 일만으로 시작되고 마감되지 않는 사례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한 나라의 선거와 정책의 변화는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고, 거기에 대응하는 전선을 구축하게도 된다. 역사적으로 합종연횡이나 대불동맹이니 하는 것들이 이러한 세계정치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고전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대 세계정치의 상호 연계성은 이제 단순한 정권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통/통신의 혁명적 변화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가가 상호의 존성의 심화로 인해 이제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고립되어 살아갈 수는 없는 상태다. 미국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논의가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여타 국내의 정치적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일본, 중국을 모두 흔들어 6자회담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기도 한다. 한국의 정권교체가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 모두에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또한 세계정치 사회의 역동성은 이러한 국가와 권력구도 중심의 변화의 연계성과 상호성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적 영역의 변화에서 연원하는 힘들이 세계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측면을 설명해 준다. 한 국가에서 발생한 민주주의의 발달과, 인권에 대한 고려의 증진 등이 다른 국가에 영향을 주고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기도 한다. 최근에 발생한 아시아의 한류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나 드라마 등이 수출되면

서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게도 된다. 온사마 배용준을 통해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직접적으로는 관광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다 도시와 로버트 할리, 박노자를 통해 우리는 세계를 접하기도 한다.

이제 세계는 이미 전쟁이냐 평화냐의 이분법적 시기를 넘어섰다. 어떤 전쟁이고, 어떤 평화인가라는 보다 다원적이고 심도 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여기서 세계정치 이전의 국제정치와 매우 다른 면모를 보일 수밖에 없다. 행위자가 국가로 제한되었던 시대의 국제정치로부터 다원적 행위자가 포진한 세계정치로의 전환이 이미 가시권에 들어선 상황으로, 각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힘—즉, 파워의 속성도 달라져야 하고, 이미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 변화하는 힘의 속성을 살펴보고, 새로운 힘의 내용을 살펴보자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자 목적이다. 바로 이것을 소프트 파워라 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약소국도 무역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리카아도의 비교우위설에 필적할 정도의 중요한 개념이다.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가지는 힘의 원천과 역할에서 잘 드러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프트 파워는 21세기 미래 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가치 기준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가 여성의 렌즈를 장착하면 보다 광범위한 부분의 변화가 동시적으로 발생하여 세계정치의 변화를 촉진시키면서 전쟁과 평화의 내용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공헌할 수 있음을 밝혀 보고자 한다.

2. 세계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파워의 다양성과 역동성

1990년대를 지나면서 국제정치는 다양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라는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을 넘어서 탈근대적, 메타이론적 담론들이 탈이데올로기라는 현실 속에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제정치 이론가들이 여타 사회과학 분야의 탈근대론적 반성에 힘입어 국제정치학 이론의 편향성을 비판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존 이론에 대한 도전과 해체 작업을 통해서 강대국 중심적, 근대적 국제정치학 이론의 숨은 가정들이 발견되고, 이들이 실증주의적 이론관의 저변에서 어떻게 작동하여 왔는지, 주변화 되어 왔던 문제의식이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이들을 전면으로 부상시켜 담론을 전개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대국에 대비되는 약소국, 자본주의 중심 세력에 대한 주변부 세력, 자본에 대한 노동, 서구에 대한 비서구, 근대성에 대한 전근대성 또는 탈근대성,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입장은 그동안의 주류 국제정치에서 전략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주변화 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편향적 입장의 집적된다면 결과는 당연히 군사력의 강조와 안보에 대한 강화로 이어지고, 그 영향 아래 약소국, 비서구, 여성 등은 더욱더 주변화 되는 악순환으로 들어서게 되어 버린다.

국제사회 문제의 해결에 있어, 기존의 개념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설정이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과 혼란 속에 빠져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어도, 정신대 문제는 아직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쟁이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구성원들의 안정된

삶이라고 할 때, 과연 전쟁의 승리가 소기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글로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국가의 이익보다는 전 지구의 공통 이익에 초점을 맞추면서 협력, 화해, 조화 등을 이루는 것이 국제정치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의 국제정치가 확대되어 가는 모습으로, 이는 이전의 대결의 장으로 인식되는 국제정치의 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안들이다. 국제정치를 국가 간의 관계로 설정하기 보다는 개인, 국가 등을 포함하는 관계의 국제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개념의 국제관계가 제시되고 있다.¹⁾ 여기서 국제정치를 넘어서는 세계정치를 운위할 여지가 발생한다.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유명무실했던 개인이 이제는 실질적 행위자로 대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안전하면, 개인도 안전할 수 있다는 일차원적 사고에서 국가의 질서 확보와 개인의 안보 문제는 다차원적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다원적 사고의 일환이라고 하겠다.²⁾

(1) 행위 주체와 파워의 다양화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탈근대 사상과 탈냉전을 기점으로 하여, 세계정치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이미 변화의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절대 강국의 존재가 일본과 독일, 이어지는 EU의 등장,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부상, 또한 제어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북한과 쿠바, 이란, 이라크의 지속적 준동으로 국가 행위자의 다변화는 이미

1) Christine Sylvester의 *Feminist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Postmodern Era* 참조.

2) 박의경. “한국에서의 여성, 평화 그리고 통일: 여성주의적 미래사회를 위하여”, 『대한정치학회 보』 제14집 2호(2006), p.241.

기정 사실이 되었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생겨 세계정치의 현장은 그야말로 다극화의 극치를 보여준다. 여기에 초국가, 비정부 기구가 가세하고 개인이라는 변수까지 세계정치의 현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 국제환경단체 등 비정부 기구가 각국의 정치와 국제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중국에서 탈북자의 털출과 안정을 돋는 단체의 존재, 북한 내에서 활동하던 의료구호단체 등 수없이 많으며, 간혹 이들의 행동으로 각국 정부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곤 한다. 국가의 결정만으로 세계정치의 현장에서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전쟁과 협상을 하는데도 각국의 의견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여론을 청취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특히 인권 등 개인의 안정된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행위 주체의 변화와 함께, 세계정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 여겨지는 것은 그들이 활용하는 파워의 내용이다. 기존의 국가 중심의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군사력이었고, 이어서 경제력이 등장하였다. 이 두 가지는 국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그 파워를 통해서 타국에 대한 영향력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가의 기본 목표였다. 여기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바 “책임 질 수 없는 사태”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게 되면, 승전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패전국의 정책을 선회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지만, 과연 언제나 그러했는지 과거의 전쟁사를 살펴볼 때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볼 때, 전쟁의 궁극 목적을 전쟁이라는 수단으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면,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상대국을 자국의 영향권하에 두려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고전적 방법이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눈에 보이는 물리력—즉, 하드 파워—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21세기 세계정치에서는 그 파워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쟁은 군사력을 적극 활용하는 분쟁과 갈등의 해결방식으로 기동력과 효율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만약에 효율성이 단판 승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지진 후에 여진이 계속되는 것처럼 전쟁이 전쟁을 부르게 되는 상황으로 악화된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빠져 들어갔던 수렁이 바로 그 사례다. 원하는 상황은 아직 달성되지 않고,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이 계속되게 되면, 군사력이 자랑하던 기동력도 무기력하게 된다. 10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미국을 건져낸 것은 미국의 핵무기가 아니라, 외교협상이었다.

하드 파워의 경쟁의 끝이 대량살상 무기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무기는 활용 경직성을 가지게 된다. 한 번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바로 그 경직된 군사력 중심의 하드 파워의 공백에 문화와 가치체계 등의 소프트 파워가 등장한다.

소프트 파워의 등장은 또한 세계정치 관심사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탈근대 사상의 사회적 파장을 여러 면에서 논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과 사의 간격이 무너지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고, 사소함으로 간과되었던 것들이 삶에서의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게 된 상황이라 하겠다. 이제 세계정치의 주요 관심사가 기존의 거시적 분석에서 미시적 분석으로—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로—이동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20세기 후반

이래 제2기 폐미니즘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여 온 내용이다.

(2)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여기서 파워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조지프 나이(Joseph Nye)가 우리의 궁금증을 상당부분 해소해 준다.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지만, 종합적으로 말해서 파워란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을 말한다.³⁾ 이 말에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반부에서는 그 방법에, 후반부의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이라는 부분에서는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자의 논의에는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부여 간의 상관관계에 중점을 두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한 실제로 이 두가지 모두 확실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동기부여를 통한 어떠한 행동에 대해 과연 파워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고, 또한 능력이나 자원이 있다고 해도 언제나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한다는 것쯤은 주지의 사실이다.⁴⁾

생각은 생각이고, 자원은 자원일 뿐, 그것이 원하는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한 생각을 통해 동기부여가 되어 동의하고, 자원이 있어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성과를 향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도 있어야 하고, 자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라는 두 가지 개념이 한 데 어울려 있는 셈이다.

하드 파워의 대표적 사례는 ‘힘(power)’이라 할 때, 통상적으로 떠오르는 군사력, 경제력 등 상대를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3) 조지프 나이 저, 홍수원 역, 『소프트 파워』(서울: 세종연구원, 2004), p.24.

4) 조지프 나이(2004), pp.25-30.

물리력으로, 이에 대해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의 뇌리 속에 전형적인 ‘파워’로 각인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소프트 파워는
앞서 말한 위협보다는 설득과 유인, 동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게
된다. 나이는 한 마디로 이렇게 정의한다. “소프트 파워는 타인의 선호대상
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⁵⁾ 그렇게 하는 힘의 자원이
바로 소프트 파워로서, “매력적인 개성이나 문화, 정치적 가치와 제도,
정당해 보이거나 도덕적 권위를 지닌 제반 정책 등 무형자산과 연관되고
있다”.⁶⁾ “공동의 가치와 정당서, 그런 가치의 실현에 참여해야 한다는
책임감”⁷⁾ 등이 나이가 들고 있는 무형자산의 내용이다. 즉, 내가 추구하려
는 가치와 신념과 제시하는 내용이 맞아 떨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지지하는
데 아무런 갈등이 없게 된다. 각종 비정부 기구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테러 집단에 참여하여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까지
실상은 모두 이러한 사례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결국 소프트 파워는 무엇인가를 달성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자,
하드 파워가 과도하게 강력하여 운용상의 경직성을 가질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된다. 세계의 변화는 결국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기
에, 인간의 가치관과 생각의 변화만큼 확실한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없는 것이다. 100년도 안 되는 동안의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관의 수출을
통해서, 서구 제국은 수백 년의 전쟁을 통해 얻은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 전쟁을 통한 식민지 시장보다,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통해
만들어진 자본주의 시장이 더욱더 광범위하고 실제로 더욱 더 장기적인

5) 조지프 나이(2004), p.30.

6) 조지프 나이(2004), p.31.

7) 조지프 나이(2004), p.33.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점은 구태여 주를 달지 않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다. 전쟁을 수행할 때에도 자국과 타국의 여론이 뒷받침이 될 경우와 아닌 경우, 그 수행 능력에 많은 차이가 나는 점은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도 잘 드러난다.

세계정치의 현장에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는 밀접하게 연동하여 움직인다. 물론 하드 파워 없이 소프트 파워만 있는 경우도 있고, 소프트 파워 없이 하드 파워만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가 공존하여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사상가인 카(E. H. Carr)는 “국제적 파워는 군사력과 경제력, 여론을 움직이는 파워로 분류할 수 있다”⁸⁾라고 이미 오래 전에 역설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빌발 직전에 미국이 했던 작업을 돌이켜 보면 이러한 측면이 잘 드러난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상황에서, 국제적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기 위해 테러 집단과 대량 살상 무기의 위험성과 위법성, 비도덕성, 비윤리성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나타날 여론의 역풍도 이미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다.

3. 소프트 파워와 여성의 렌즈

소프트 파워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다.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내고 행동으로 전환시키면서, 소프트 파워는 세계정치를 움직이는 힘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마음을 사로잡는

8) Carr. E. H.,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NY: Harper and Row, 1964), p.108.

힘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일 것이다. 이러한 힘에는 도덕성, 가치관, 문화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성과 가치관이나 문화도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일부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성중심적 가부장 사회의 도덕성, 가치관, 문화가 그들만의 도덕성, 가치관, 문화가 아닌지,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증 작업을 통해서 여성의 렌즈를 장착하게 될 때 비로소 소프트 파워는 타자(the Other)의 대표격인 여성의 시각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세계정치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정치의 현장에서 여성의 렌즈는 전쟁에 대한 시각과, 안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적용, 전쟁 수행 방법에 대한 성찰 등과 함께, 중요하고 위대한 것과 사소한 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 행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많은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the personal is political)”⁹⁾이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국내 정치와 더불어 세계정치도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세계의 문제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정치의 개인화가 언제나 좋은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이미 테러와 각 지역의 반정부 집단을

9)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개인적인 것은 사적 부문에 속하여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사고에 대항하여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이분법적 구도에 대해 타파를 상징하는 문구로서 “개인적인 문제”가 다루어지는 사적 영역의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며 곧 공적 문제”라는 내용으로 페미니즘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되었다.

이 말은 Carolyn Merchant가 자신의 저서 *Radical Ecology*에서 문화적 생태여성론을 소개하는 글에 언급된 문장이다. 인간 본성을 생물학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생물학적 섹스와 사회학적 젠더로 구분한다. 여기서 섹스와 젠더는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권력 기반을 갖게 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통해서 전쟁의 개인화 현상을 그저 부인만 할 수는 없게 되었다. 개인적 차원의 분석을 통해서, 국가적 전쟁이 승리로 마감되어도 고통스럽고 아픈 개인의 삶의 여정이 왜 종식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1) 파워 개념의 이중 전환: 파워로서의 여성?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이론은 현실주의, 이상주의 그리고 구성주의까지 매우 다양하다. 현실주의는 군사력을 핵심으로 하는 하드 파워 중심이라면, 이상주의는 도덕성과 가치관에 중점을 두는 소프트 파워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 여기에 구성주의는 양자의 상호 작용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¹⁰⁾ 각기 모두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미 현실주의는 갈등의 자연적 해결이나, 국가 간 이익의 조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흡족적 자연상태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상주의는 이해관계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칸트적 발상에 근거를 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젠더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과연 그러한지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남성중심사회의 기본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형성된 이론과 시각을 성 중립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양심선언이 필요하다. 중립이란 말 그대로의 ‘中立’이다. 남성 중심적 개념과 용어를 가지고 여성의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부분이 있듯이, 세계정치도 이러한 젠더화된 개념을 가지고는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10) 존 베일리스 · 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서울: 을유문화사, 2005), pp.13-21.

삶의 질곡이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 전쟁에서 강간을 당해 임신한 여성의 경우 전쟁의 종식만으로 해당 여성에게 발생한 문제가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성의 렌즈—즉, 남성의 렌즈—를 끼고 있는 셈이다. 성의 렌즈(lenses of gender)¹¹⁾는 눈에 띄지 않은 채 숨어 있지만,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과 담론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속에 침투한 채로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여타의 물질적 상황(불평등한 임금이라든가 부적절한 보육 환경 등)을 형성해 간다. 여기서 형성되는 모든 개념은 진정한 의미의 중립(gender neutral)이 아니라 젠더화된 개념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랜 동안의 성의 렌즈로 형성된 문화적 축적을 통해서 우리는 젠더화된 국가(gendered state), 젠더화된 전쟁(gendered war), 젠더화된 평화(gendered peace), 젠더화된 안보(gendered security) 등의 세계정치적 개념들을 중립적인 개념으로 인지하게 된 것이다. 진정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개념의 중립성은 사실 인식과 파악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성에 노출된다. 사실에 대한 인지가 불확실할 때, 모든 과정에 대한 접근 또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존의 성의 렌즈(남성의 렌즈)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문화 속에 축적되어 현실의 옷을 입고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로 벗어버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남성중심사회에서 사회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여성의 렌즈를 장착하여 의도적으로 경도된 시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21세기 세계정치의 현장에서 하드

11) Sandra L. Bem, *The Lenses of Gender*(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3), p.2.

파워는 소프트 파워로 전환되고, 소프트 파워는 여성주의적 시각의 가미를 통한 또 다른 전환 과정을 거쳐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가치로서의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다.

(2) 위대함과 중대함의 의미: 여성 이슈의 등장

세계정치에서 하드 파워가 중심이 되어왔던 저변에는 파워에 대한 인식구조가 깔려 있다. 여러 가지 파워 중에서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만들고, 형성하는 힘,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 전 분야에 보다 넓은 영향을 미치는 힘을 기준의 인식구조에서는 최우선으로 한다. 즉, 주체와 형성하는 힘, 그리고 공적 영역에 대한 우선성이 드러나면서, 주체가 아닌 존재, 형성 이후의 힘, 공적이 아닌 영역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발생한다. 차별받는 객체가 나타나고, 만든 이후의 유지하는 힘에 대한 관심이 생성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시간을 영위하는 사적영역에 대한 편웨이가 발생한 것이다.

세계정치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중심으로 국력을 측정하고, 구성원들의 삶의 행복을 설명한다. 기준의 인식구조에서 중심적이고 중요하다고 인지되는 몇 가지로 세계정치를 설명하려 하면서 사회의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욱 더 보이지 않게 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국내 정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계정치에서도 소외된 지역,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지들의 계산되지 않는 행복과 불행이 미래의 안정과 평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정과 평화는 기득권자들의 상황이 아니라 사회의 최소 수혜자¹²⁾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소수자에 대한

12) Rawls는 *Theory of Justice*에서 분배의 원칙에서 기준이 되는 지점으로 ‘최소 수혜자’를 등장시킨다.

담론의 핵심이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모여 1년, 10년, 100년이라는 중요한 기간의 단위를 구성한다. 개개인의 삶의 행복이 모여 사회의 복지상황을 증명한다. 개별 국가의 안전으로부터 세계의 평화는 가능성을 열어간다. 중요한 과제와 힘은 어디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 여기에 페미니즘이 내세운 “The personal is political”이라는 명제의 적실성이 존재한다.

중대함과 위대함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하고 미세한 삶의 현장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존 사회의 틀에서 여성의 움직임이 개인적이고, 그 영역이 사적 영역이라면, 바로 여기에 여성 이슈가 국내 정치의 중대 이슈로, 세계정치의 커다란 화두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전쟁이 끝나도 계속되는 여진으로 안정과 평화로의 길은 여전히 멀었던 역사적 경험에서 보아 중대함이란 일반적인 인식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렌즈는 이러한 사회의 미세한 움직임을 간파해내고, 최소 수혜자의 속삭임¹³⁾까지 들을 수 있는 일종의 특수 장치인 셈이다. 그 미세한 그물망을 통해서 하드 파워적 속성의 중대함이 놓쳤던 많은 것을 복구해 내면서 삶의 완성태를 그려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떠한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중대할지는 몰라도, 그 일을 지속시키는 작업이 사회를 위해서는 더욱 더 결정적이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J. Rawls, *Theory of Justice*(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13) 루소가 말하는 일반의지는 사회의 힘 있는 강력한 목소리(힘없는 자의 목소리는 배제된 소리)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속삭임이 포함된 의지이다. *Social Contract*, Book II, chapter 3: “개인 의지에서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을 가감상쇄하여 그 차이의 합계로서 일반 의지가 남는다.”(J-J. Rousseau, *On the Social Contract*, edited by Roger Masters(NY: St. Martin’s Press, 1978)).

것은 천재와 영웅의 중대한 작업일 수도 있겠으나, 그 시대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버드 대학의 강의에서 스와니 헌트는 이렇게 말한다.

소피아라는 이름의 여인 사진을 여러분에게 남깁니다. 그녀는 크로아티아의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매일 그녀가 하는 일은 정오에 교회에 가서 벽에 묶여 있는 끈을 풀고 잡아 당겨 첨탑 위의 종을 울리는 일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세르비아 세력이 탱크를 타고 한 마을에 차례로 밀고 들어와서는 가톨릭 교도인 크로아티아인들의 집 전체를 포격했습니다. 마침내 교회에도 도착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포격하고, 마지막에 첨탑에 포를 씁니다. 교회가 포격으로 무너졌지만, 매일 정오 교회 마당에서 이 여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쪼개져 사방으로 흘어졌지만, 그 더미 가운데 첨탑에 있던 종이 옆으로 쓰러진 채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여든 살 여인 소피아는 몸을 굽혀 마디가 굵은 손으로 종의 추를 잡고는 팔을 흔들어 종을 울렸습니다.¹⁴⁾

정규 군대의 탱크와 맞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지만, 손으로 추를 잡고 종을 치는 일은 여든 살 여인 소피아처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하드 파워를 넘어서는 소프트 파워의 힘이 있고, 여성의 렌즈로 볼 때 드러나는 사소한 일상의 연속 속에서 역사를 지속시키는 보이지 않은 손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3) 진정성과 정당성의 확보: 정상화의 원동력

하드 파워와 함께 이미 소프트 파워는 세계정치에서 중요한 힘으로 인정받은 지 오래되었고, 여성의 렌즈까지 갖춘 소프트 파워는 정당성까지

14) 브라이언 파머 외 엮음, 신기섭 옮김, 『오늘의 세계적 가치』(서울: 문예출판사, 2006), pp.233-234.

담보한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자 가치로서 등장하게 된다. 싸우기만 하던 이들이 갑자기 평화협상을 한답시고 회담장에서 여러 가지 제안과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만, 얻어지는 결과는 실망스러운 경우가 다반사다. 앞서 말한 여인 소피아처럼 언제나 종을 치던 자라야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종을 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다. 소피아에게서 보인 것은 진정성과 정당성이고, 이것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평화 협상의 자리에 여성의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 군사력을 비롯한 물리적 힘과 승리만을 추구하던 시대에도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그 정당성은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아 온 바 있다. 이른바 정전론(Just War theory)으로 전쟁시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빗토리아, 수아레즈 등 많은 학자들이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절차와 과정에서의 진정성과 정당성이라도 확보하지는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담론화 과정을 통해서 전쟁의 개시절차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국제법적 차원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아군과 적군만을 구별하던 초기의 상황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고, 전투 병력과 비전투 병력을 구분하여 전투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집단 살육이라든가, 민간인이 포함된 지역에 대한 무차별 공격 등은 전쟁 중이라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세계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어렵게 되기도 하려니와, 전쟁 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세계정치의 상황이다. 최근의 경향으로 보아, 개별 국가 단독으로 전쟁이나 세계정치적 작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타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외교 정책 수행시 진정성과 정당성의 확보는 21세기 세계정치

의 현장에서는 필수적인 가치라고 하겠다.

한 마디로 파워가 파워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책의 진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드 파워를 가진 국가가 진정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세계는 평화로울 수 있다. 하드 파워를 가진 국가에서 진정성과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 세계정치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실제로 하드 파워에서 진정성과 정당성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드 파워의 속성 자체가 폭력성을 내재적으로 보유하고 있기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드 파워에 소프트 파워적 속성이 부가되어야 폭력성이 줄어들면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논할 수 있는 진정성과 정당성의 단서라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소프트 파워와 도덕성, 윤리성을 동시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렌즈, 즉 여성적 시각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부터 국제적으로 이슈화시켜 온 2차 대전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보스니아 전쟁과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쟁 범죄로서 인간성과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연합과 국제인권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오랫동안 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의 개입을 부정해온 가운데, 최근에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미국 의회에서 한 중언은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사실상 20세기 후반부터 일본은 세계 선진국이자, 소프트 파워의 강국으로 등장하였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세계를 제패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고, 나이는 자신의 책에서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소프트 파워의 잠재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전쟁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로 볼 때 아직 일본의 소프트 파워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드러난다.¹⁵⁾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의 문제점을 국제화시키려는 시도를 통해서 전쟁 시 여성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꽤 높아졌지만, 그 속도는 그리 빠른 편이 아니었다. 위안부 출신 여성들은 고령으로 줄어들어가고, 국제사회는 이를 국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1992년 보스니아 전쟁이 발생하고 세르비아 군인에 의한 보스니아 여성의 집단 강간 사건¹⁶⁾이 발생하게 되었다. 보스니아 사건 직전에 전개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적 경각심이 국제연합이나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전개되었더라면, 적어도 이러한 집단적 피해 여성 강간의 문제는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지만, 사건은 이미 발생했고, 이러한 강간 행위에 실제로 평화유지군으로 투입되었던 유엔군도 포함되어 있었다¹⁷⁾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하드 파워에 소프트 파워의 혼적도 없으며, 여성의 렌즈는 더군다나 존재하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세계정치를 논하는데 전쟁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진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1991년의 걸프 전쟁과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을 비교해 보면,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난다. 걸프전쟁은 이라크의 쿠웨이트에 대한 불법적 침공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라크 전쟁의 경우에는 사담 후세인의 대량 살상무기를

15) 조지프 나이(2004), pp.156-160, 인용은 p.156.

16) 캐더린 맥키넌, “전쟁시의 범죄, 평화시의 범죄”, 스티븐 슈트·수잔 얼리 엮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 『현대사상과 인권』(서울: 사람생각, 2000).

익명의 편지 인용 부분 참고(pp.110-111), 이후의 출처는 111쪽의 하단 주5를 참고.

17) 캐더린 맥키넌 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2000), p.118.

명분으로 내세웠다. 전자는 정의롭게 그리고 명예롭게 해결되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살상무기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당성에 타격을 받은 상태로 아직도 진행 중이다.¹⁸⁾ 2001년 9·11테러 사건이 발생한 직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명분은 테러의 주범 빈 라덴을 추적한다는 것이었지만, 미국은 당시 세계 여론을 의식하면서 탈레반 정권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타국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던 많은 나라들이 전쟁 참여로 기울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미국의 군사력, 탈레반 정권의 비도덕성과 함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상황에 대한 보도였다. 당시 미국의 언론은 탈레반 정권 치하에서 여성의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12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공교육이 금지되었고, 사교육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성인 여성은 남성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교육받은 여성의 없는 현실에서 여성 의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여 결국 여성은 의료 혜택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어 버린다.¹⁹⁾ 이러한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에의 동정 여론을 여성에 대한 동정 여론으로 전환시키고, 이는 결국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의 참여로 이어진 것이다.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린다는 명분이 여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정당성으로 연결되었다고 하겠다. 아프가니스탄 사례에서

18) 김재명, “정의의 잣대로 본 이라크 침공 4년”, 「신동아」 2007년 4월호(통권 571호), pp.560-569.

19) 이상원,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지위 가축 수준”, 「동아일보」 2001년 10월 7일자(2001년 9월 10일 호주 시드니의 신문 *Morning Herald*의 보도 인용) 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www.amnesty.se/women>
1977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여성사회운동가 Meena(1957-1987)에 의하여 설립된 아프가니스탄 여성혁명협회(The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RAWA)는 국제사면위원회와 연계하여 <http://www.rawa.org/>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의 여성 인권 탄압의 실체를 인류 양심 세력에서 알려왔다.

보듯이 인권, 특히 여성의 인권은 세계정치의 현장에서 정책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어떤 정책과 행동에 실천력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세계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여성의 렌즈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슈가 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슈화시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 바로 여성의 렌즈의 역할이자 필요성이다.

4. 갈등과 전쟁에서 협동과 평화로의 길

갈등과 전쟁은 세계정치의 영원한 숙제다. 많은 국제정치 연구자들의 목표는 언제나 갈등—그 첨예한 상태인 전쟁—의 해결로 모아진다. 지금까지는 갈등과 전쟁의 주체도 종래의 하드 파워를 가진 국가들이었고,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회담의 주체도 바로 이들이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동의 평화 협상도, 북한발 핵 위기를 타개하려는 6자회담도 모두 하드 파워를 축으로 모여있다. “Inclusive Security: Women Waging Peace”²⁰⁾의 필자 스와니 헌트(Swanee Hunt)는 이렇게 말한다.

외교정책 집행자들처럼 명석한 이들이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전쟁을 벌이는 이들만 불러서 “이제 평화를 창출하자”고 말하는 어리석을 일을 할 수 있는지, …… 우리에겐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이들을 대화에

20) *Foreign Policy* No.124(May/June 2001), pp.38-47.

참여시키려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들을 대화에 참여하게 합시다. 물론 대화 자리에는 전사도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왜 다른 목소리를 불러들여 목소리의 구성 비율을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지 않는 거죠?²¹⁾

세계정치와 세계 시민사회를 논하는 시대를 맞아 협동과 평화로의 길목에서 다른 목소리 소프트 파워와 여성의 렌즈가 들어설 여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드 파워가 맞서는 장에서 하드 파워는 협동과 평화로의 효율적인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 갈등과 전쟁을 중지하기 위해 제시하는 안들은 대체로 상호 보상에 의한 방법으로 보상의 효과가 중지되는 순간 그 잠정적 협동과 평화도 중지된다. 결국 하드 파워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협동과 평화를 위한 길에서 하드 파워는 무력화되고 만다. 강력한 무기가 그 강력함으로 인하여 활용 가능성이 낮아졌을 때 드러나는 효율성은 통상적 무기에 있듯이, 하드 파워가 맞서는 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소프트 파워이고, 여성의 렌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쟁보다는 오히려 테러가 보다 중요한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테러로 21세기가 열리자 이에 대해서 미국은 전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 같지는 않다. 하드 파워에 대한 하드 파워의 대응이 그리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잠정적 결론이다. 『지하드 맥월드』에서 벤자민 바버는 이렇게 말한다. “맥월드가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무시할수록, 지하드는 자신의 존립을 위해 테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 이런 비극적 충돌을 막을 대안은 세계적으로 시민사회를 굳건히 하는데 있다. …… 민주주의만이 대립하지 않는

21) 브라이언 파머 외(2006), p.230.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 세계를 창조하면서 지하드의 테러와 대적할 수 있다”.²²⁾ 공격에 대한 반격은 2차 공격을 불러오고, 이는 또다시 역공격으로 이어지는 공격의 악순환으로 빠져들 뿐, 공격의 중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우리는 이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세계정치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국가와 하드 파워를 중심으로 한 많은 시도는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국가 외적인 관여 주체의 등장, 소프트 파워와 여성적 시각의 도입 등이 세계정치에서 중요한 힘으로 등장하였다.

실제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통상적 의미의 하드 파워를 보유한 국가라고 생각되지 않음에도 지난 20년 간 지구상의 많은 분쟁 지역에 대한 평화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활동이 루터의 정신을 전파해 온 오랜 전통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노르웨이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킨다”.²³⁾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볼 때, 이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특히 약자에 대한 연민과 지원, 대외적으로는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윤리투자의 원칙²⁴⁾ 등을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그들 국가가 보여주는 정책의 근저에는 소프트 파워와

22) 벤자민 바버 저, 박의경 · 이진우 옮김, 『지하드 맥월드』(서울: 문화디자인, 2003), p.33, pp.367-396.

23) 조지프 나이(2004), p.37.

24) 최근 노르웨이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책임 투자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펀드가 세계 거대기업을 떼게 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 환경 등 윤리 기준에 위배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덕성과 정당성을 보유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세계 기업이라는 생각에서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미래를 위한 투자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세계 기업들의 원칙이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노르웨이 ‘윤리투자’에 세계기업들 벌벌” 한겨레신문 2007년 5월 4일자).

여성의 렌즈가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사회는 국내 및 국제적 분쟁에서 모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²⁵⁾

비록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세계정치에서 하드 파워를 행사하는 주요 행위자는 아니지만, 이들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대체로 지구의 자연환경과 평화를 위한 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해외 원조 비율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높다. 또한 여성 문제에 대한 공공정책 영역에서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흡스데드에 의하면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사례는 군사화 되지 않은 대외정책과 경제거, 생태학적 안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는 비젠더화된 사회모델로부터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한다.

젠더화된 기준 구조에서 비젠더화되는 것이 그 첫 단계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여성의 렌즈가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렌즈를 통해서 기준의 젠더화된 사회적 규칙들이 변화해 나가게 된다. 차별적 규칙들이 정상이라고 인정받아 왔던 오랜 시기에 대한 교정 작업에는 당연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앞서 말한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사례도 있지만, 현재 세계정치의 현장에서는 많은 비정부 기구들이 활동하는 바, 이들은 인류의 공익을 대표하는 “세계의 양심”을 그 행동원칙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들 NGO는 실제로 별다른 파워 자원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원칙과 양심에 따른 지지자와 추종자들에 대한 흡인력을 가진다. 특히나 20세기 말부터 진행된 세계의 정보화 혁명을 통해서 NGO의 인적 동원 능력은 이미 국가를 넘어섰다. 진정성과 정당성만 있으면,

25) Geert Hofstede, “The Role of Cultural Values in Economic Development,” in Arvedson, Lonnroth, and Ryden(eds.), *Economics and Values*(Stockholm, Sweden: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86) pp.122-135.

NGO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 어느 곳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고착된 사상이나 삶의 구조를 자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²⁶⁾

앞서 언급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단체나 보스니아의 한 여성 소피아의 행위,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세계정치의 규칙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에 여성의 렌즈 추가 등 일련의 작업에 있어 핵심은 바로 여성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규칙 변화의 핵심에도 젠더화된 규칙의 변화가 그 중심되는 이슈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각 개별국가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여성 문제의 해결은 결국 국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전쟁으로 시작된 21세기를 전쟁으로 마무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작업은 국가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의 개연성을 낮추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군비 축소라든가, 무기 개발 금지 등의 방법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전쟁을 전쟁으로 끝낼 수 없듯이, 전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평화는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하고, 질서는 질서를 통하여 자리 잡아야 한다. 이것이 노르웨이의 “윤리투자” 선언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자 동시에 새로운 해결책으로 다가서는 이유다. 즉, 여성의 렌즈로 세상보기를 통해서 남성성에 기반을 둔 젠더화된 국가의 젠더 제한성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비젠더화된 국가로부터 형성되는 새로운 이상적 세계질서 모델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논문 접수일 4월 19일, 심사 완료일 6월 4일

26) 조지프 나이(2004), pp.163-164.

Keywords: culture, international relations, Asia, nationalism, globalization, communities

Culture and Power

Jung-Woon Choi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would be complicated to find any logical junction between culture and politics, or power. This article, however, aims at exploring the link built up by the medium of "discourse." Since the late 18th century, the cultural discourse in the modern western Europe was formed and expanded with the rise of nationalism, which in turn had functioned as an essential factor of actors' ident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levant to the extent of acceptable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level of actors' status. Based on this logic, this article makes a critical argument on Orientalism of E. Said and Soft Power of J. Nye. It might be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e conflictual aspect of the cultural discourse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its function as a basis in terms of existence, rather than interest or power.

Keywords: cultural discourse, power, international politics, Orientalism, Soft Power, being/existence

Soft Power and the Lens of Gender

Euikyung Park

Department of Politics and Diplomac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1990s, power and actors in International Politics has been diversified with the end of ideology. This article analyzes the nature and contents of diversified power, or "Soft Power." It is a new source of power to resolve the limits of rigid applicability that Hard Power has shown, which includes not only culture and value systems but also women's point of view. The lens of gender could examine the notion of war and security from different

approach, Also, this lens makes it possible to re-interpret meaning of major/minor and have a fruitful discussion for legitimacy. From this perspective, a comprehensive argument can be completed to include the least beneficiaries' private sphere, which lead to a new ideal model of world order based on de-gendered states.

Keywords: Soft Power, women's perspective, de-gendered, major/minor, legitimacy

Reconstructing Cultural Dynamics of Globalization: Capital, Communication and Identity

Gil-Sung Park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There is much debate currently on globalization of culture. In its simplest classification, the body of literature has been developing in a dichotomous way, classifying the core and the periphery, the domination and the subordination, the universal and the particular, the strong culture and the weak culture, and the global and the local.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n account that makes sense of the logic and complexity of the cultural globalization. In this paper, we attempt to compile a theoretical argument of the culture which manifests itself in three ways: culture as a capital, culture as a communication, and culture as an identity. Also I present different types of the interplay between globalness and localness and suggest the simultaneous coexistence of the strong global and the strong local as the overall tendency observed in contemporary society. The global contents are prevailing but at the same time strongly embedded in the local legacy, reinterpretation, and resistance in conjunction with the three ways of cultural manifestation.

Keywords: globalization, culture, capital, communication, identity, locality